

좋은 강좌 안착 기대... 미술공부 제대로 할래요

광주시립미술관 '2026 아카데미' 정례회 발판 주목 '미술사' 안팎 오가며 명맥 유지... 올해 일정 확정 6월까지 2·4주 수 5회 진행... 첫 강좌 8일 오후 2시

미술관에 전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 시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한 이론이나 배경 등의 공부 혹은 상식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뤄지고 있다.

가뜩이나 광주가 전시만 열리는 패턴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이같은 프로그램들은 감상자들의 내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유익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술관에서 강의 위주에는 늘 전시를 여는 것 자체가 자리했다. 그러나 화가나 미술작품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은 그 위상이 흔들리거나 지속성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의)의 미술관 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들뜬다며 그레도 1996년 무렵부터 명맥을 유지해온 것이 미술관 아카데미다.

때로는 미술사를 다뤘지만 작가들 재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제대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실무자들의 역량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정례회 기초를 다지거나 좋은 강좌로서 그 틀을 안착시키는 원년이 될 수 있을 지 궁금하긴 하다.

올해 미술관 아카데미는 '예향의 맥(脈): 한국근현대미술 속 광주를 읽다'라는 타이틀로 4월부터 6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강좌는 미술사 학자 조은정 고려대 초빙교수가 맡는다. 격동의 근현대사 속 한국미술의 흐름과 광주·전남 미술의 연결 지점을 조명할 이번 강좌는 중앙화단과 긴밀히 교차하면서도 고유한 궤적을 그려온 광주·전남 미술의 면모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자산을 시민과 함께 새롭게 인식하고, 동시에 미술에 대한 능동적 참여와 비평적 시각을 나누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강좌는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한국미술의 주요 사조와 쟁점을 시대순으로 짚으며, 각 시기 광주·전남 미술의 대응과 변화를 함께 살핀다. 먼저 1강은 '근대를 열다-시각 체계의 변화'라는 타이틀로 열리고, 광복의 열망과 한국전쟁의 상흔 속에서 월북·월남으로 재편된 미술계를 살필 2강은 '희망과 고난의 소용돌이에서-광복과 전쟁, 재편되는 미술계'라는 타이틀로 5·16군사정변 이후의 국가 주도 미술과



조은정



광주시립미술관은 '2026 미술관 아카데미'를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세미나실에서 '예향의 맥(脈): 한국근현대미술 속 광주를 읽다'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사진은 이태호 영지대 석좌교수가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와 풍속화'라는 명칭으로 2023년 6월 강의 모습.

서구 미술의 수용 양상을 다룬 3강은 '사회를 반영하는 미술-앵포르멜의 실상과 새로운 미술들'이라는 타이틀로 각각 이뤄진다.

이어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와 민중미술의 역사적 발원을 들여다볼 4강은 '형상 미술과 민중미술-주변부의식에서 역사의 주체로'라는 타이틀로, 1990년대 세계화의 물결 속 광주비엔날레 창설, 대안공간의 등장, 미술시장의 성장 등 동시대 미술로의 전환을 국내·지역 미술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조망할 5강은 '세계화, 국제화, 다원화-민중미술에서 동시대미술로'라는 타이틀로 각각 진행된다.

이에 앞서 첫번째 강좌는 8일 오후 2시

광주시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갖는다. '근대를 열다-시각 체계의 변화'라는 주제를 통해 개항 이후 서양 문물의 유입과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한국미술의 시각 체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핀다.

내한 서양인 화가들의 활동 및 일본 유학 후 귀국한 한인 화가들의 약진, 사진술의 성행이 맞물리며 기존의 시각 질서가 근본적인 전환을 맞이한 당시 미술계의 면모를 조명한다. 특히 중앙과 광주·전남 지역 화단의 연결 속에서 근대 미술계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다.

강의를 맡을 조은정 초빙교수는 미술사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근현대

미술사학회 회장을 역임한 미술사학자로, 개항기 이후 한국미술과 서양미술의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2013년 석남을 기리는 미술이론가상, 1994년 제2회 구상조각회 조각평론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비평으로 본 한국미술'(공저), '권력과 미술' 등이 있다.

윤의 관장은 "미술관이 개관하면서 여러 프로그램도 시작됐다. 하지만 그동안 틀이 다소 없이 이뤄지다보니 연속성상에 놓이지 못한 것 같다. 실무자들의 역량에 따라 틀이 변화된 것도 하다. 올해 미술관 아카데미가 어찌보면 처음 하는 것이나 마

찬가지다. 원 위치로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된다. 정례화되고 좋은 강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강좌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이 한국미술의 흐름 속에서 광주·전남 미술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좌는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60명 선착순 예약제로 무료 운영된다. 예약은 각각 시작 3주 전부터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https://artmuseum.gwangju.go.kr/>)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062-613-7138.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AI 배우는 성인 '과학교실' 국립광주과학관, 20명 모집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급변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성인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창의적인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인공지능(AI)으로 다시 배우는 성인 과학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의 기본 소양부터 실질적인 콘텐츠 창작까지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6기에 걸쳐 다채로운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연간 운영 계획은 4월(1기) 인공지능(AI) 문해력(리터러시) 마스터(입문), 5월(2기) 인공지능(AI) 활용 유튜브 숏츠 제작, 7월(3기) 인공지능(AI) 문해력(리터러시) 마스터, 9월(4기) 인공지능(AI) 협업 전자책 출판, 10월(5기) 인공지능(AI) 문해력(리터러시) 마스터, 12월(6기) 인공지능(AI) 가족 영상 앨범 만들기 등 순으로 이뤄진다.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제1기 '인공지능(AI) 문해력(리터러시) 마스터' 과정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총 4회 진행된다. 교육자들은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최적의 명령어를 만드는 명령어 프롬프트(prompt) 작성법을 익히고, 그록(Grok), 제미니(Gemini) 등 최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해 직접 이미지와 음악을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하게 된다.

1기 교육은 과학관 내 별빛누리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3일까지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원활한 실습을 위해 개인용 노트북 지참을 권장한다.

이정화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교육실 선임연구원은 "단순한 이론 공부를 넘어 인공지능(AI) 도구를 일상과 창작 영역에 능동적으로 도입해 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교육 신청과 상세한 교육과정 확인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할 수 있다. 교육료는 2만원. 정채경 기자 view2018@



'세가지 변주 드로잉 II'

이미지의 흐름... 새로운 서사의 가능성 공유

광주예술의전당 전시지원 공모전 강동호展 오늘부터 '비껴간 서사' 주제

광주예술의전당은 일상의 익숙한 풍경 속에서 낯선 긴장과 회화적 변주를 포착해 온 강동호 작가의 개인전을 3일부터 5월 3일까지 '비껴간 서사'라는 타이틀로 갖는다. 총품작은 80여 점의 25여 점.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는 완결된 이야기보다, 회화적 장면이 형성되는 방식과 그 장면을 바라보는 시선의 구조에 주목해온 그는 사건의 중심을 직선적으로 따라가는 대신, 이를 비껴간 주변부의 움직임과 이미지 사이에 형성되는 틈과 간극을 회화 공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작가의 회화는 특정한 서사를 재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서로 다른 시간과 시선, 감각의 층위가 교차하며 끊임없이 유동하는 역동적인 '장(Field)'으로 작동한다.

이번 전시의 중심축인 '세 가지 변주 드로잉' 연작은 작가의 세계관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다섯 개의 패널로 나뉜 화면은 각각 독립된 구조를 지니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분절과 연속이 동시에 일어나는 독특한 흐름을 형성한다. 각 패널 사이의 물리적 간격은 이미지의 흐름이 끊기고 이어지는 리듬을 만들어내며 관람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특히 작가의 작품은 짙은 녹색 위로 휘감기듯 지나가는 곡선과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감의 흔적들이 중력의 방향을 가감 없이 드러내며, 정지된 상태에 머물지 않는 움직임과 만들어내는 동시에 붓과 캔버스가 맞닿기 전의 머뭇거리고 이후 이어지는 속도감 있는 운동감이 화면 전체에 배어들며, 변주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세'

또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기보다는 장면과 장면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그의 작업은 우리가 무심히 지나쳐온 주변부의 의미와 관계의 긴장을 새롭게 환기한다. 이번 전시는 고착된 시선의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흘러지고 다시 생성되는 새로운 서사의 가능성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한편 광주예술의전당 공모에 선정된 강동호 작가는 2025년 김해문화재단 웰컴레지던시와 2017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작자센터 오픈랩 등에 참여했으며, 개인전 5회와 국내외 단체전 다수에 참여하며 작품 활동을 확장하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봄기운 완연한 청명서 울려 퍼질 '무등풍류'

광주문화재단, 내일 희경루 일대... 취타대 행렬 등 프로 다채

절기 문화가 점차 일상에서 멀어지는 가운데, 전통의 시간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청명(淸明)을 맞아 희경루 일대가 전통 풍류의 장으로 변신하는 것.

광주문화재단은 4일 오후 2시 희경루 일대에서 절기·세시 체험프로그램 '2026년 무등풍류 in 희경루'를 갖는다.

'희경의 봄, 청명(淸明)'이라는 타이틀로 열린 이번 행사는 봄의 절기 '청명'을 맞아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다.

청명은 하늘이 맑아지고 땅이 따뜻해지며 만물이 새롭게 싹트는 시기다. 광주문화재단은 남구 구동에 소재한 희경루에서 시민들이 봄의 생명력과 절기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통예술과 체험을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행사는 이날 오후 2시 취타대 행렬로 막을 연다. 웅장한 대취타 연주와 전통행렬이 희경루 잔디마당을 가로지르며 봄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희경루 누각에서는 국악동화공연 '남생이와 신비한 나무'가 두 차례 진행된다. 청명의 의미를 담은 전래 이야기를 가아금과 장구 선율이 맞춰 들려준다. 아이들이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소중함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악동화공연은 회당 30팀 규모이며, 사전예약과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다양한 연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절기 체험 프로그램 역시 준비된다. '새싹보리 화분심기', '화전만들기'를 비롯해 광주시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문상호 필자와 함께하는 죽벌 세보기 체험, 조기종 소목장과 함께하는 소목장(대패) 체험도 마련돼 지역 전통기술 장인의 손길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다. 체험은 오후 2시 10분부터 총 4회에 걸쳐 이뤄진다. 오후 1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현장 신청은 각 체험부스에서 진행하며,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이 제한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오후 4시 20분부터는 어린이 대상 '절기 골든벨'이 열린다. 국악동화공연과 절기 체험을 통해 익힌 내용을 퀴즈로 풀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놀이처럼 배우며 절기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 '삼행시 백일장'과 '민속놀이체험', '희경루 해설투어' 등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돼 주말 나들이객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광주 시민은 물론 내외국인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통문화관 홈페이지(<https://www.gtc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지난달 절기·대보름 행사에서 강강술래를 하는 시민들. 사진제공=광주문화재단